

이동진의 빨간 책방

33/34

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 허운경

책, 임자를 만나다

위대한 개츠비

오늘은 오랜만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다룹니다. 청취자 분들 중에 ‘고전 다뤄 달라’ 요청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구요. 최근 영화 개봉과 함께 ‘스크린셀러’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저희도 시류에 편승,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죠. 현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이라 국내에서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최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개츠비 역을 맡은 동명영화가 개봉되면서 다시금 큰 관심을 받았죠. 영화 개봉과 함께 출판사들 번역 전쟁, 출간 경쟁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힌 번역본 세 가지를 함께 다뤄보는! 사상 초유의! 일견 재미나 보이지만 무모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를 해 봅니다.



에디터 통신

채근담, 돈이 아닌 사람을 본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뭘까요? 아마 ‘관계’ 일 겁니다. 『채근담, 돈이 아닌 사람을 본다』는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고전 <채근담> 속에서 찾아낸 사람을 얻는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상처받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범리, 맹지반, 포청천 등 중국 고전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오늘 소리 나는 책에서는 <위대한 개츠비>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3가지 번역본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도 3개의 서로 다른 번역자의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츠제럴드의 뛰어난 문장들도 즐기시고 번역자의 개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뉘앙스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김영하 씨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드디어 데이지와 5년 만에 재회하게 된 개츠비가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니나 인터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

Q. 이번 책은 제목이 유달리 긴데요. 제목의 의미와 이번 책에서 선생님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여행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받았던 위로의 내용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현실에 발이 묶인 생활인으로서의 독자들이 어떤 여행을 경험하면 좋을까요?

A. 한번쯤 혼자 여행을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이상 혼자 잠도 자고 바닷가도 거닐어보고 밥도 먹다보면 자기도 몰랐던 또 다른 자신과 만날 수 있거든요.

Q. 여행가실 때 마다 꼭 갖고 가시는 물건이 있다면?

A.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모카포트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휴대용버너와 커피가루도 챙기고요.

Q. 그동안 다니신 많은 여행지들 가운데, 어떤 곳의 풍경들이 좋으셨는지요?

A. 오직 제주도에만 있는 꽃자왈이라는 숲이 있는데 양치식물과 활엽수, 이끼식물들이 어우러져 울창한 밀림을 걷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책

인종차별의 역사

차이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의 첫걸음

코스모폴리스

21세기 새로운 개츠비의 탄생

앨런의 전쟁

한 남자가 마주한 전쟁의 여백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비평의 길을 열다

20세기 영화사의 불멸의 기록

권태

가장 인간적인 키워드 '권태'에 대한 입체적인 해부



이동진의 빨간 책방

디지털 매거진 7월호!

애플 앱스토어
 뉴스가판대를 통해
디지털 매거진 Vol.05 발행
 오감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세요

Vol.05 다운로드 



매거진 미리보기

아이튠즈 뉴스가판대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 VOL.05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책, 임자를 만나다



소리나는 책



2B가 그리러 갑니다



내가산 책